

공급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식

성명·보도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 [취재요청]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

작성일 2017.07.25    작성자 교육선전실    Views 1894

<h2>취재요청</h2>			
일시	2017년7월25일(화)	문의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시민에게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

일시: 7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동서울 버스터미널

주최: (가칭)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

### 1. 기자회견 및 캠페인 취지

- 매년 과로에 의한 뇌심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 사망만 300명이 넘습니다. 작년, 올해에만 집배원 노동자의 과로사, 혼술 남녀 PD 노동자의 과로자살, 넷 마블 게임업체 노동자의 과로 자살이 제기가 되며 이어, 노동자의 과로가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사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되어 무제한의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60.6%, 종사자의 42.8%가 그 대상입니다. “과로사회 한국”의 주범이 5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 조항인 것입니다.
- 2017년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독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과로사 대책위(준)은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 이후 동서울 터미널의 버스, 택시 노동자들과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가길 기원’ 과 더불어 시민안전을 위한 노동시간 특례 폐기 내용의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 2.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 여는 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노동시간 특례의 문제점, 업종 종합)
- 과로와 노동자 건강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시민안전 ----- 공공운수 버스노조
-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시민안전 ----- 서비스 연맹 택시노조
- 집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실태와 문제점 ----- 집배노조 정책국장 김 효
- 시민안전을 위해 노동시간 특례 폐기 요구 -----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박순철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단위
-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과로사 근절 관련 공동사업을 준비하는 단위로 민주노총 (공공, 금속, 언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 센터, 노동자의 미래, 일과 건강, 집배노조 등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는 기구임.

List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